咸安趙氏 宗會報

發行人：趙鏞韶
編輯人：趙英濟
發行處
咸安趙氏宗事運營會
慶南 咸安郡 郡北面 中岩里 126
TEL：(0552)83-6787
FAX：(0552)83-6787
印刷處
도서출판국제·중앙인쇄문화사
TEL：246-5667·2825
FAX：246-2825

鷹巖齋 重建 완공

落成式 12월 4일 午後 1時
〈陰 10月 12日·漁溪先祖 묘향일·개별 通知 생략〉

▲鷹巖齋 重建공사가 완공되어 落成式을 기다리고 있다.

後孫 誠金으로 1年만에
工事費 절감위해 직접시공 주관

咸安趙氏 中廟朝 漁溪 선조 후손들의 숙원이던 鷹巖齋 중건공사가 완공되었다。 지난해 10월 13일 기공식을 갖은 지 만 1년만이다。

이 공사는 국내·외 후손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한 숭조정신(崇祖精神)의 쾌거이다。

이 응암재는 10여년전부터 분중 원로(元老)들께서 2백16년전 건립돼 그동안 여러 차례 도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중건키로 뜻을 모아 착공된 것이다。

이 공사는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건설업자에 도급(都給)을 주지 않고 직영함으로써 집행부가 많은 애로를 겪은 의미있는 공사였다。

규모는 옛날 대지 1백60평에 70평 늘린 2백30평에 옛건물 20평보다 2평 정도 넓혀 22평으로 중수되었다。 목수는 慶州 金千鎔옹(74)이, 기와는 咸安 魚泳옹(77)、 담장은 晋州 吳点錫씨가 맡았으며 장호(門)는 固城 배둔 金聚俊씨가 제작하였다。 주추돌 등 석물(石物)은 郡北 趙萬濟 종원이 정성을 다 해 마쳤다。

정원수는 晋州 趙玉來 종원이 시가의 절반값에 식수를 했고 조경(造景)은 晉林주택 사장 趙億濟 종원이 자기 회사 조경팀을 보내 예정가격의 절반으로 완공했으며 또 재실 옆 승용차 주차장 3백여평에 자비로 아스팔트 포장도 했다。

이번 공사와 함께 漁溪 선조 산소 진입로와 연못 주변도 정비하는 한편 새 잔디로 말끔히 단장했다。

한편 응암재 낙성식은 어게선조 묘사날인 12월 4일(음력 10월 12일) 오후에 갖기로 했다。 종사운영회 사무국에서는 전국 각 화수회별로 이날 참석 예정인원을 11월 15일까지 사전 통지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는 행사준비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咸趙유적保存會 창립총회를 開催
初代會長에 趙鏞燮 종원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문중(門中)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선하고 뒷바라지 할 인력이 없어 행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咸安郡 郡北面에 거주하는 一家들이 자진하여 「咸趙선적보존회」를 발기, 그 창립총회가 지난 9월 2일 郡北面 서산서원 강당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종사운영회 鏞韶 회장을 비롯、光濟 고문 등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1백50여명의 종원(宗員)들은 「선적지 보존과 선조 제례의 봉행、 그리고 묘역 보존은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고 다짐했다。

여때까지는 문중행사 때마다 70대 노인 종원들이 궂은 일은 도맡아 뜻있는 종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鏞燮 ▲부회장：完奎、鏞錫、鈺、顯準、顯宗 ▲감사：快濟、錫來、顯燮

새 會長에 趙富濟 종원
서울 全國聯合會 정기총회 盛了

지난 10월 22일 하오 咸安趙氏화수회 총연합회 정기총회가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培明고등학교 강당에서 각 지방에서 상경한 2백여명의 대의원과 지역화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총회는 景來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12명의 효부、공로자에게 표창전달이 있었고 炳全 연합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鏞韶 함안 조씨 종사운영회장의 鷹巖齋 중건공사에 대한 상세한 경과보고가 있었고 鏞九 종원의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임원개선에서 연합회 회장에는 趙富濟 종원이 선출되었다。

이날 수상한 효부상과 공로상을 받은 종원은 다음과 같다。

◇공로상 ▲趙性闌(咸安) ▲趙世奎(馬山) ▲趙石奎(浦項) ▲趙鏞岩(浦項) ▲趙東來(浦項) ▲趙根德(釜山) ▲趙善濟(釜山) ▲雲伊(慶州) ▲相茭(安東) ▲趙平來(釜山) ▲효부상 ▲林정임(임실) ▲金享子(진주)

충의공 事蹟研도

咸安趙氏 충의공 사적연구회(회장 巘大) 제12차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2일 양산군 동면 향록정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伽倻邑 청년회도

8월 13일 咸安郡 咸安面 槐山里 무진정에서 咸安趙氏 伽倻邑 청년회 정기총회가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이날 회장에 富濟 종원이 선출。

鷹巖齋건립 獻誠金 감사합니다
〈行列順〉

▲趙鏞晋(大笑軒公派·釜山) 前釜山 화수회장 3백만원
▲節度公派 谷城 宗中 2백만원
▲趙七奎(新堂公派·大邱) (주)새날 會長 1백10만원
▲趙屯濟(大笑軒公派·釜山) (株)高麗유리 회장 1백만원
▲趙㦤濟(稻巖公派·咸安) 前道議員 1백만원
▲趙必濟(大笑軒公派·釜山) 東亞化工機(株)代表理事 1백만원
▲趙石濟(大笑軒公派·釜山) (株)西晋 常務 1백만원
▲趙乙濟(大笑軒公派·昌原) (株)西晋 代表理事 1백만원
▲趙修亨(節度公派·釜山) 釜山市議會 議員 1백만원
▲趙秉源(執義公派·青松) 前公務員 1백만원
▲東溪公派 大邱 葛山宗中 1백만원
▲節度公 都事公派 道山宗中 1백만원
▲監察公派 高靈 內洞宗中 1백만원

宗告

후손들의 성금으로 추진된 鷹巖齋 중건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종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사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헌성록에 기록하신 一家분들께서는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宗會報는 家統資料

宗會報는 咸安趙氏 종중(宗中) 소식을 전하고 후손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선조의 뿌리」등을 게재(揭載)하는 교과서(教科書)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게재중인 「선조의 얼」과 앞으로 연재할 언행록(言行錄)을 사실(史實)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 한 것 입니다.

宗員들께서는 이 宗會報를 읽으신 후 버리지 마시고 모아 철(綴)해 두셨다가 다음 세대에 전하여 가통(家統)을 잇는데 자료(資料)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創刊号 부터 구하고자 하는 일가들은 아래 주소대로 연락 주시면 곧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중구 영주동 151－6 趙英濟(051) 463－1572〉

祝 鷹巖齋 重建 竣工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本部副議長
東京慶尚南道道民會 會長
趙福奎 (參議公派)

〒150 東京都澁谷區 道玄坂 1-16-6

宗員結集 求心点

宗會報발행 날로 增加추세

全國 1만 3천부 發送

宗事運營會에 구독요청 쇄도

▲黃石山城 추모제 광경

咸安趙氏 宗會報가 날을 거듭 할수록 부수가 늘어 홍보담당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처음 창간호 9천부를 인쇄하여 미리 확보된 전국·화수회 명단과 각급 학교 동창회 명부를 취합하여 발송 하였다.

홍보부는 일간신문 3부를 구독、정부 인사란에 게재된 향열분은 宗員들의 명단을 발췌하여 직장으로도 우송하고 있다.

이 宗會報가 널리 홍보되어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주소를 보내오는등 날로 늘어 2호는 1만부、3호는 1만1천부、4호의 경우 1만2천부를 인쇄、멀리 日本거주 종원에게도 발송했다.

그런데 지난 추석때고향을 찾은 젊은 종원들이 부모가 보관하였다가 보여 주는 宗會報를 읽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一家들과 함께 신청하는 사레도 있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에 거주하는 承來종원은『咸趙의 姓을 갖고 태어나 그 뿌리를 제대로 모른대서야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면서『宗會報는 先祖의 言行과 宗中 근황을 접 할수 있는 훌륭한 정보지 역할을 할 뿐더러 宗統을 이어 받는데 후손들의 교육적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고 지적、서울、대구、경북、충청도 친척들의 주소를 적어 부더기 구독 신청을 해왔다.

大笑軒 先生 3백98회 祭祀

咸陽에서 黃石山城 추모제도

大笑軒선생 3백 98년째 기제(忌祭)가 지난 9월12일 새벽 山淸郡丹城面召南里、大笑軒世莊에서 많은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대소헌 선조는 3백98년 전인 서기 1597년 정유재란때 한양군 안의면 黃石山城에서 전라도로 진격하는 왜군(倭軍)을 저지 하다 장열하게 전사했다.

당시 입금은 大笑軒선생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영원히 제사를 모시도록 (不遷之位) 왕명(王命)으로 정해 기제가 지금껏 모셔져 오고있다.

한편 이날 함양군 黃石山城추모위원회가 주최하는 황석산성추모제가 安義국민학교 교정에서 성대히 치루어져 후손들이 참석하여 당시 전사한 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宗土作況 조사

종사운영회는 지난 10월6~7양일간 漁溪선조 종토(宗土)비 작황조사가 있었다.

이날 鷹巖회장과 사무국장 유사(有司)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郡北面과 法守面에 산재한 5만여평의 종토에서 실시되었는데 작황은 평년작 이였으며 연간 2천5백여만원의 수세를 거두어 드리고 있다. 이 수입은 묘사와 재각(齋閣) 보수관리등에 사용된다.

獻誠金계속답지

大邱서 총5천여만원 傳達

鷹巖齋중건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재까지 헌성금이 속속 답지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살고 현재 내외 경제신문 산업부 기자로 재직하고 있는 辰來종원의 모친 李숙자 여사가 전화로『공무원 생활하다 8년전 별세한 남편 秉源(濟、方齋公)이름으로 헌성금을 낼수있느냐』고 물고『비롯 고인이 되었지만 세상에 태어나 宗事에 이름 만이라도 남기고 싶다』면서 秉源씨 이름으로 1백만원、아들 辰來종원 이름으로 50만원을 사무국에 송금 해왔다.

또 大邱화수회는 총무 良濟종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합계 5천7만원의 헌성금을 보내와 관계자들을 감동시켰다.

咸趙論壇

趙英濟 〈종사운영회 부회장〉

先祖遺業 더욱 빛내자

鷹巖齋 重建完工에 붙여

우리들의 始祖이신 충장공(忠壯公) 諱字께서는 지금으로 부터 1천64년전인 서기9백11년 王建을 도와 高麗통일에 功을 세워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으로 大將軍의 영직(榮職)에 올랐으며 咸安에 본관(本貫)을 정하고 후손들이 連綿히 이어져 이제 36대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 삼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散在)한 咸安趙氏 일족이 30만명을 헤아리고 있음은 우리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온고이지신(溫故而之新)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말은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알자」는 뜻입니다.

氏族史를 밝히고 족보(族譜)를 정비하여 氏族의 血統을 거슬러 되찾는 것은 우리의 정확한 근원을 찾아, 그 옛날 훌륭하신 업적과 공훈을 남긴 빛나는 선조의 슬기와 「얼」이 간직된 튼튼한 뿌리를 캠으로써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을 자랑삼고 거울로 받아드려 더욱 찬란하고 무성한 꽃과 열매를 거두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때에는 봉건적 氏族사회의 폐단, 族譜를 둘러싼 혼선과 잡음이 적잖았기에 氏族과 족보를 내 세우면 시대 역행의 보수적이라 지탄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歐美文化의 洪水에 빠져 우리의 옛것을 배격 또는 경시(輕視)하는 그릇된 思考方式은 나라와 겨레의 발전방향을 그르치는 잘못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世界의 선진국들일수록 그들은 族譜를 더욱 훌륭히 保存、계승하고 선조들의 유업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美國의 알렉스·헤일리의 「뿌리」는 한때 문제작으로 베스트 셀러가 되어 세찬 선풍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휩쓴 사실만으로 보더라도 血統과 族譜의 소중함을 알수 있습니다.

氏族을 찾고 族譜를 밝히는 일을 保守的인 인습이라고 生覺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氏族간 문중간 친목증진과 유대강화가 自家번영의 지름 길이며 일가 친척 다같이 꽃피는 正道인 동시에 社會와 国家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는 점을 엄숙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後孫들에게 값진 遺業을 물려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次元에서 2백16년전 세워졌던 中順祖 生六臣 漁溪先祖의 재실 鷹巖齋를 國內·外 후손들의 정성어린 성금 5억여원으로 새건물을 완공하고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一族이 이렇게 엄청난 의욕으로 지금까지 못다한 일들을 찾아 하나씩 하나씩 이룩함으로써 위로는 先祖의 거룩한 얼과 발자취를 기리고, 現世代는 보다 행복하고, 후손들에게는 번영과 영광을 누릴수 있는 遺風을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가 물려준 유업(遺業)을 더욱 빛내도록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며 先祖의 故鄕 咸安을 자주찾아 遺蹟들을 하나 하나 찾아 그 훌륭한 咸趙의 歷史를 가슴깊이 되새겨야 할것입니다.

"나의뿌리를 찾아주오"

宗事運營會에 全國서 書信

『뿌리를 찾아 달라』는 간절한 전화 혹은 서신이 종사운영회에 오고 있다.

종사운영회가 宗會報를 발간한지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수십건이 접수되어 몇건은 제외하고 거의 찾아 연결해 주었다. 이들 대부분의 宗員들은 「咸安趙氏」라는 것만 알았을 뿐、자신이 어느 할아버지 후손인지 파(派)를 몰라 사회생활에 남모르게 고뇌하고 살아가고 있다 한다.

이 宗員들의 호소에 따르면 조실부모(早失父母)했거나、부모가 (대개次男)왜정때 생활고로 일찍 객지에 나가 고향과 소식을 끊고 살았던 경우、그 밖에 사고무친(四顧無親)한 집안의 경우 등으로 대변 할수 있다.

예를 들어 (1)서울서 공무원 생활하는 K종원의 경우 남이 모르게 (창피하기 때문) 1년 한차례씩의 휴가 기간동안 제적등본에 나타난 부모의 고향을 찾기 4년、종사운영회의 도움으로 끈질긴 추적끝에 친척을 찾았다. 『찾고 보니 여한이 없다』고 했다.

(2)서울서 약국을 경영하는 D宗員은 분기별로 보내오는 종회보를 접하고서야 뿌리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고 종사운영회를 노크했다. 종사운영회는 제적등본에 기재된 원적지에 살고있는 宗員들에게 수소문 하여 찾게해 주었다. P종원은『오는 부모님 제사때 부모님께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3)釜山서 큰 식당을 경영하는 D宗員은 7대조(代祖)가 섬으로 이주하며 대대로 살면서 대수가 헛갈려 한대(代)높혀 회수회에 참여했다가 29대 제(濟)가 아니고 30대 래(來)로 밝혀져 7대 이하 소문중(小門中) 회의를 열어 바로 잡은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많은 세대가 있지만 지면이 모자라 열거 할수없고 이 宗員들은『우리와 같은 一家들이 전국에 많을것이다. 창피해서 속앓이만하고 있을뿐』이라고 말하고 종회보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것이라고 종사운영회에 감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18년전 만들어진 족보(大同譜)에 누락되어 있어 자신들의 이름이 기재된 족보를 언제 만든것인지 궁금해 했다.

뿌리를 찾고자 하는 宗員은 부모혹은 조부모의 고향、면사무소에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종사운영회로 보내오면 최선을 다해 찾아 줄것이라 했다.

한편 종사운영회는 빠른 시일 안에 가첩(家牒)을 제작할 예정인데 宗員들을 가첩에 대수(代數)에 맞게 기재 하였다가 족보가 만들어 진다고 할때 제출하면 누락되지 않고 족보에 등재 될 것이다.

祝 鷹巖齋 重建 竣工

東盛商社株式會社

取締役 會長 趙 盛 濟 (斗巖公派)
專務取締役 趙 映 來 (斗巖公派)

〒140 東京都 品川區 東大井 1-2-16

先祖의 言行錄

이번 宗會報 5號부터 선대(先代) 순으로 언행록(言行錄)을 게재합니다. 이 언행록은 족보에 게재된 원문을 번역하여 선대의 숨은 행적들을 후손들에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고려사(高麗史), 조선사(朝鮮史)의 내용을 발췌하고 더러는 야사(野史)도 게재될 것입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編輯者 註

琴隱典書公篇 ①

금은선생 열(悅)은 고려(高麗)말에 태어나 처음 공조전서(工曹典書·현 장관급) 벼슬로 조정에 들어갔다.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무슨 관직을 거쳤는지는 세월이 오래 흘러 살펴볼수 없다.

公은 처음 咸安郡郡北面坪緖에 사시다가 院北洞으로 옮기셨다. 가야금과 그림에 능해 달빛 흐르는 밤 가야금을 뜯으면 그소리가 수리밖에서도 들렸다. 그림 역시 세간에 전해지고 있다 한다. (咸州誌)

공양왕(恭讓王) 3년에 공이 상소(上疏)를 올렸다. 간추려 보면 「시중(侍中) 벼슬에 있는 이단(李旦·李太祖의 이름) 부자(父子)는 용모와 풍채가 비범하고 지용(智勇)을 겸비했습니다. 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원주(原州)의 진(陣)에 머무르고 있으나 뜻은 주군(主君)을 해치고자 합니다. 그 아비는 밖에서 민심을 끌어드리고 아들은 안에서 조정의 무리들과 결탁하고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위세가 임금을 흔드는 자치고 모반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단이 병권을 장악하는 것은 마치 용이 구름을 얻는 것과 같사옵니다. 병권을 빼앗으면 백년의 근심을 덜 것이요, 빼앗지 않으면 위란이 내일에라도 벌어질 것이옵니다. 병권을 거두어 사직을 보위하소서」

3일을 연이어 상소하고 열차례나 간언했으나 왕은 李旦부자를 두려워하여 용단을 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조열(趙悅) 등을 축출, 먼곳에 귀양하는 처분을 내리려 함으로 공은 咸安으로, 길재(吉再)는 善山으로 이색(李穡)은 한산으로 돌아갔다. (高麗史)

임신년(공양왕 4년) 이시중은 原州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하였으며 공양왕을 폐위해 군(君)으로 격하, 간성(杆城)에 살게 했다. 민심이 끓는 물처럼 흉흉했다. 李王은 개성(開城) 수창궁에서 즉위하고 趙俊, 南在, 鄭道傳, 裵克廉 등 39인을 공신으로 봉했다.

王康, 王商, 王承寶, 王承貴등 왕씨는 섬으로 귀양보냈다.

영남에 있으면서 李侍中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은 호천통곡했다. 洪載, 趙承肅(덕곡공), 吉再등과 함께 밤을 도와 두문동(杜門洞)에 이르니 더불어 국사회복(國事回復)을 논의하는 자가 70명 남짓이었다. 기타 피란민도 수천명에 이르렀다. (비, 빈, 궁녀 종친자녀 재상처첩이 충신열사의 소식을 듣고 두문동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동네가 협소하고 양식이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다.

충신 70여명이 가산을 풀어 이들을 구제했다. 무릇 이 70여명은 평소 충렬하고 고결하며 문장등 재주가 뛰어난지라 李王이 흠모하고 찬탄해 혹은 벼슬로 회유하고 혹은 위협했지만 거의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공과 孟思誠, 趙安卿, 林先味등은 공양왕을 따라 杆城으로 갔다. (高麗史)

李太祖는 임신 원년에 폐위한 공양왕을 공양군이라 하고 杆城을 湯沐邑으로 격하시켰다. 잡인의 출입을 금했으나 공은 유산객이라 이름을 바꾸고 민가에 숨어들어가 때때로 공양왕의 안부를 살폈다. (朝鮮史)

갑술년 한양성(漢陽城)이 준공되어 낙성연이 열렸다. 太祖는 각 도·군에 명하여 거문고, 퉁소, 가무에 능하다고 소문난 자들을 불렀다. 왕이 본시 趙典書가 거문고를 잘 탄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옛친구의 예로서 친서와 가마를 보내 청해오니 군이 사양하기 어려웠다.

한양에 이르러 무명베옷과 짚신을 신고 엄숙하고 당당하게 궁에 들어가니 왕이 측은히 여겨 손을 잡으며 「초췌하여 전일의 당당함은 없으나 위엄과 용감한 기상은 변함이 없구료」라 말하고 수일동안 거리낌없는 담소를 나눴다. 왕은 「금번 낙성연에 친구를 위하여 거문고를 타서 조정 모든 사람들의 귀를 한번 놀라게 해줌이 어떻겠느뇨」라 했다.

〈次號 계속〉

(정리=釜山日報 社會部 趙瑄 記者)

先祖흠모하는 家族

서울 (株)東宇國際 判濟종원

外國의 아들·딸 불러 省墓

응암재重建에 誠金 1천만원도

祧廟에 들려 三代함께 參拜

▲西山書院 방문 一家族 기념촬영

「선조의 얼」을 아들, 며느리, 딸, 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여름방학을 이용, 귀국시켜 3代가 함께 咸安을 찾은 일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서 (주)東宇國際를 경영하는 判濟 종원(固城公派)이 바로 장본인이다.

判濟 종원은 찌는듯이 무더웠던 지난 8월 11일 일가족 3代 9명이 咸安을 찾았다. 일행은 부인, 큰아들 哲護 종원(34) 부부와 손자 顯峻 형제, 그리고 日本서 박사코스를 밟고 있는 둘째아들 哲璐 종원(31) 내외, 美國 조지워싱턴대학에 재학중인 딸 賢庭(21)양등 9명이 승용차편으로 咸安에 도착, 종사운영회 관계자의 안내로 西山書院, 조묘, 원북재, 전서공 신도비각, 채미정, 漁溪선조 산소를 참배하고 건립 중인 응암재를 견학했다. 더욱이 일행은 漁溪선조 내외분의 위패가 봉안된 조묘에서 일가족이 함께 참배한 일은 일찍 없었던 일로서 감회가 남달랐다. 또 일행은 종가(宗家)에 들려 부인은 종부(宗婦)의 손을 잡고 선조의 유적을 보존하는데 수고한다고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유서깊은 선조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유적지를 필름에 담기도 했다.

判濟 종원은 응암재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쾌척하기 전까지는 선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불러 들인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선조를 정확히 알고 공부하는 것이 자손된 도리(道理)인 것 같아 실천해 본 것」이라고 겸손해 했다.

全國花樹會순례 ③

弘報部次長 趙鱗濟

大邱花樹會篇

▲會長 趙宗浩 종원

宗員들 巡訪 1억원 基金

先蹟地순례·장학금 지급

大邱화수회(회장 宗浩·東溪公派)는 32년전인 1964년 10월 작고한 秉顯종원등 원로 20여명이 선조를 기리고 一家끼리 상부상조 하며 족애(族愛)를 다지자는 취지로 모임을 가진것이 모태가 되어 창립되었다.

大邱화수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약 7백여세대, 결속이 잘되어 움직이는 화수회라는 인상을 받아왔다.

회원 분포를 보면 대구 원대(院垈) 趙氏로 이름난 東溪公후손을 비롯하여 경북 青松, 安東, 醴泉 등지에서 진출한 一家들과 경남 북부지방에서 大邱로 유학하면서 정착한 一家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占龍, 鏞孝종원(이상 작고) 瑛濟, 鏞守종원 등이 화수회 회장을 거쳤으며 현재 16대 회장에 宗浩 종원이 맡고 있다.

大邱화수회가 활성화 된것은 11년인 1984년 무보수 총무로 지명된 良濟종원(判決公派)이 참여 하면서 비롯되었다한다.

그가 처음 맡은 재산은 현금 7백만원뿐, 10여년 동안 성의있는 一家들과 자주만나 화수회의역할,중요성등을 강조하며 찬조를 받는 등으로 현재 은행에 예금한 금액만도 자그만치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90년부터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그동안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계속할것이라 한다.

또 大邱화수회 몇몇 원로들은 咸安등지 묘사에 참석하지만 젊은층은 선적지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이 90년부터 단체로 咸安 西山書院·묘소·무진정 등을 찾았고 寧越 어계선조사적지, 山淸, 召南 大笑軒선생 생가와 장렬하게 전사하신 黃石山城등지를 답사했고 앞으로도 매년 先蹟地를 다니면서 숭조사상을 고취시킬 것이라 한다.

宗浩회장에 의하면 大邱화수회가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은 총무 良濟종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때로는 생업을 뒤로 미루고 宗事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순께 大邱 그랜드호텔 회의실에서 鷹巖齋 중건공사 헌성금 각출에 대한 모임을 소집해 놓고, 그사이 15년동안 투병하던 良濟종원 부인이 별세하였다. 총무가 불참하면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 良濟 종원은 삼우(三虞)도 지나기전 모임에 나와 회의를 진행시킨 성의를 보여 많은 종원들의 박수를 받았고 이로인해 대구일가들이 감동하여 헌성금 모금에 적극참여하여 7백세대에 5천7만원을 거두어 종사운영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鏞韶 종사운영회장은 만일 선조의 영(靈)이 계시다면 먼저 良濟 종원이 복받아야 한다고 감동했다.

祝 鷹巖齋 重建 竣工

咸安趙氏花樹會 總聯合會
會長 趙弼濟 (節度公派)
事務局長 趙景來 (小尹公派)
서울시 중구 신림동 207-2 대림APT 555호
TEL (02) 275-3109

咸安趙氏 서울花樹會
會長 趙泰奎 (新堂公派)
事務局長 趙洸來 (大笑軒公派)
서울시 중구 신림동 207-2 대림APT 555호
TEL (02) 275-3109

咸安趙氏 13忠 (1)

先祖의 얼⑤

趙晶來〈文化部 次長〉

선조들은 1천여년의 세계(世系)를 이어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많다。

조선시대 13忠으로 표창된 선조는 외침이나 내란으로 나라가 위태로울때 지위의 높고 낮음과 경향(京鄕)의 구별도 없이 나라 사랑함에 있어 충성된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다。

조선 정조때 이조판서를 지낸 洪良浩는 13충록의 서문에서 「충신은 한 나라에 한 사람 얻기도 어려운데 한 집안에서 십여 사람이라하니 함안조씨의 두려움은 금할 수 없으며 경탄해 탄복하는 바」라고 썼고 세인(世人)들은 「한 문중에서 충신이 열세 분이라니 이 어찌 고금을 통해 드문 일이 아니리오」하며 함안조씨를 충절의 명문으로 칭송하고 있다。

咸安趙氏 13 忠은 1592년 일본의 풍신수길이 군사 15만명을 보내 우리나라를 침약하여 7년간 2차례에 걸쳐 임진、정유왜란을 일으켰을때 당시 지배계급은 당파싸움으로 나라일을 돌보지 않고 임금이 몽진하는 상황이었으나 선조들은 왜병과 맞서 싸움으로 아홉분이 선무원종(공신(功臣):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는 칭호)에 표창되고 그 중에서 아홉분이 충신으로 현창되었으며 정묘호란때 순절한 한분、중종반정과 인조반정때 수훈한 두분、이괄의 난때 위국 충정한 한분이다。

함안조씨 13충록의 순서에 따라 3-4회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참판공 붕(鵬)=울산산성에서 순절

▲두암공 방(埅)=화왕산성에서 왜적을 무찌름

▲대소헌선생 종도(宗道)=황석산성에서 순절

▲승지공 준남(俊男)=정유재란때 함안에서 순절

▲판서공 신도(信道)=왕가를 호송하다 한강변에서 순절

▲감찰공 민도(敏道)=상주에서 순절

▲고성공 응도(凝道)=정유재란때 고성에서 순절

▲참의공 익도(益道)=인조반정때 수훈

▲어모공 선도(善道)=이괄의난때 수훈

▲참판공 계선(繼先)=정묘호란때 순절

▲절도공 수천(壽千)=중종반정때 순절

▲참판공 탄(坦)=화왕산성에서 적을 무찌름

▲군수공 형도(亨道)=화왕산성에서 적을 무찌름

◇참판공 붕(자:대익)은 어계선생의 玄孫이며 우후공 건의 손자로 선전관을 지낸 廙華의 둘째 아들이다。

1534년에 태어나 일찌기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훈련원 부정일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蔚山에서 왜적을 맞아 화살이 다하도록 힘껏 싸웠으나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노한 음성으로 적을 꾸짖어 「내 동방예의지국에서 태어나 왜적에게 생명을 도적당하는구나」하시며 순절하였다。 전장에서 시체를 거두지 못한데다 전 가족이 임란의 참화를 당하였고 부인 여주 李씨와 함께 함안 용암에 합장되었다。

후에 병조참판에 증적되고 공신으로 녹권되었다。 후손들이 군북면 사도리 삼충사에 춘추로 향사를 올린다。

◇두암선생 방(자:국정、 호:두암)은 어계선생의 玄孫 내헌공 瀾의 손자이며 廙華의 여섯째 아들로 1557년(명종12) 8월 11일에 태어났다。

선생은 남달리 제주와 용맹이 뛰어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집안의 젊은 장정들과 곽재우 장군 진영에 들어가 왜적과 싸웠고 집안의 형인 판관공 탄과 조카인 형도、동도와 함께 화왕산성에서 많은 공을 세워 무적장군이란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선생은 공을 내세우지 않고 고향에서 은거해 있을때 고향사람들이 그 충절과 효성에 감탄하여 그 공적을 적은 장계를 올리려 하자 그 문서를 빼앗아 불사르고 엄히 이르기를 「신하가 나라를 위하고 그 자식이 부모를 받드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이치다。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한다。

1607년 봄에 정한강공、장여헌공 등 여러 선비들과 용화산 밑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놀며 시를 지어서 남긴 것이 용화동범록이다。

「어버이 섬기기란 마땅한 효요 나라를 위해서는 또한 충이라 슬프다 이내몸은 늙다 못했으니 강호에 한이 끝이 없구나」

곽망우공이 이 시를 보고 칭송하기를 화왕산성에서 그대의 충의를 알았더니 이제 또 그러한 시를 보는구나 했다。

1638년4월17일돌아가시니 향년82세였다。

가선대부 호조참판에 증적되었고 묘소는 함안 대산면 용화산에 배위 정부인 성산구씨 묘와 합분이다。

鷹巖齋건립 獻誠金 감사합니다

▲咸安伽倻邑花樹會(二次分) 94만원

▲趙奉顯 外寧越宗中 60만원

▲趙性燮(斗巖公派・釜山) 前校長 50만원

▲趙龍業(斗巖公派・日本) 前實業人 50만원

▲趙英濟(大笑軒公派・郡北) 宗事運營會 常任副會長 50만원

▲趙京濟(大笑軒公派・釜山) 釜山機械工高 校監 50만원

▲趙澈濟(大笑軒公派・郡北) 종사운영회 사무국장 50만원

▲趙權濟(執義公派・日本) 實業人 50만원

▲趙善濟(執義公派・日本) 實業人 50만원

▲趙泰來(大笑軒公派・서울) 部將公派宗孫 50만원

▲趙曾來(大笑軒公派・서울) 國際火災安道 代理店代表 50만원

▲趙晶來(大笑軒公派・釜山) 朝興銀行 蓮山洞支店長 50만원

▲趙辰來(執義公派・서울) 內外經濟新聞 記者 50만원

▲斗巖公派 南浦齋 宗中(郡北) 50만원

▲咸趙金海花樹會 50만원

▲梁山 都事公派 宗中 50만원

▲趙鏞振(同知公派・金海) 金海花樹會長 30만원

▲趙鏞洙(參議公派・釜山) 30만원

▲趙鏞柱(大笑軒公派・釜山) 前釜山市 洞長 30만원

▲趙鏞弼(新堂公派・青松) 青松花樹會長 30만원

▲趙鏞鐸(執義公派・大邱) 金塔(金銀房) 代表 30만원

▲趙光濟(節度公派・서울) 駐스페인 30만원

▲趙德濟(節度公派・谷城) 農業 30만원

▲趙濟明(新堂公派・青松) 本會理事 30만원

▲趙一來(執義公派・서울) 三星生命保險(株) 代理 30만원

▲趙顯國(大笑軒公派・釜山) 三星生命(株) 慶南총국장 30만원

▲執義公派 主敬齋 宗中 30만원

▲咸趙密陽花樹會 30만원

▲趙鏞洪(韜巖公派・山仁) 農業 25만원

▲趙玉濟(執義公派・法守) 農業 25만원

▲趙丁奎(監察公派・法守) 農業 20만원

▲趙乙奎(參議公派・郡北) 農業 20만원

▲趙命奎(同知公派・金海) 農業 20만원

▲趙實根(奎・都事公派・梁山) 경남도청공무원 20만원

▲趙鏞錫(韜巖公派・郡北) 前國民學校 校長 20만원

▲趙鏞淳(新堂公派・青松) 農業 20만원

▲趙鉉濟(新堂公派・青松) 商業 20만원

▲趙英濟(大笑軒公派・釜山) 自動車 代理店主 20만원

▲趙吉濟(大田) 大田市 東區 城南洞 一八九-五〇 20만원

▲趙章來(大笑軒公派・法守) 戶議公派 宗孫 20만원

▲趙顯準(大笑軒公派・郡北) 農業 20만원

▲趙在源(芝嶽公派・青松) 農業 20만원

▲趙學坤(大笑軒公派・南旨) 農業 10만원

▲趙鏞泰(東溪公派・大邱) 10만원

▲趙鏞國(新堂公派・青松) 農業 10만원

◆姓名(한문)・파・직업 등이 기재 안된 채 送金하신 宗員의 연락 바랍니다。 와비(臥碑)에 새기기 위해서 입니다。

▲동방산(마산) 50만원

▲조용재(울산) 50만원

▲조금래 50만원

▲조용재(곡성) 30만원

▲조용관(釜山) 30만원

菊薦祭 엄수

초헌관에 金爀珪 경남지사

가을 생육신(生六臣)에게 향례(享禮)를 올리는 국천제(菊薦祭)가 11일 1일(음력 9월 9일) 咸安郡 郡北面 院北洞 西山書院 사당에서 엄수되었다。 이날 초헌관에 경남도지사 金爀珪씨가、아헌관에 李悅燮씨、종헌관에 金東烈씨、집례에 金昌壽씨 축관은 李元成씨가 각각 맡았다。

宗員動靜

▲趙二濟종원=8월 1일 국회사무처 의전과로 영전

▲趙興來종원=8월 1일 교육부 행정관리 담당관으로

▲趙良來종원=8월 1일 서울은행 신촌지점장

▲趙在斗종원=8월 1일 한국증권거래소 국제협력부로

▲趙進顯종원=8월 1일 한국산업은행 국제영업부로

▲趙鏞健종원=8월 1일 한국방송공사 기획예산국 기획부장으로

▲趙寶奎종원=8월 1일 光州시 서구 부청장으로

▲趙運濟종원=8월 1일 한국주택은행 화천지점장으로

▲趙瑾來종원=8월 2일 국민은행 관악지점장으로

▲趙晶來종원=8월 5일 조흥은행 부산 연산동지점장으로

▲趙康來종원=8월 10일 중소기업은행 공항동지점장으로

▲趙鏞培종원=8월 10일 중소기업은행 안양지점장으로

▲趙鏞柱종원=8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으로

▲趙鳳來종원=8월 30일 한국은행 天安사무소장으로

▲趙在昊종원=8월 30일 한국은행 금융지원국으로

▲趙君濟종원=9월 7일 釜山東華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로

▲趙俊雄종원=9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東部支廳長으로

▲趙鏞國종원=9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으로

▲趙顯喆종원=9월 25일 건설교통부 총무과장으로

▲趙元濟종원=10월 1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趙範來종원=9월 8일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열린 부산지역 28개 상호신용금고 사장단회의에서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 부산광역시지부장으로 재선임

▲趙福來종원=9월 10일 부산금정구서동 성보육원 원아 50명을 해원농장으로 초청、위안의 날 행사를 개최

趙溪先生 유적비 除幕式

陽川公 趙溪선생 유적비 제막식이 지난 10월 15일 咸安郡艅航面 主東里 별천에서 성대히 치루어졌다。 陽川公은 漁溪선조 12세손이며 釜山대학교 趙元濟교수의 5대조(1802~1878)로 당대 유학자였다。

西山書院見學

▲咸安清風會(회장・秀男・鏞)주최、95년 회원 자녀 수련회가 지난 7월 29일 郡北面 院北洞 서산서원 강당에서 개최。 이날 원로종원 등 1백55여명이 참석하였다。

▲釜山청년회(회장・鏞範)주최、가족동반하계수련대회가 지난 7월 30일 郡北面 院北洞 서산서원 강당에서 개최。 이날 1백10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응암재와 무진정을 순방하였다。

▲9월 27일 咸安趙氏伽倻邑 화수회(회장 선제 종원) 회원 1백65명이 버스 4대에 분승、강원도 寧越읍 소재 漁溪선조 사적비가 건립된 漁溪비원을 참배。 일행은 치악산 제명록도 견학。

▲10월 11일 咸安趙氏參知公派 大宗會 회장 周熙 종원 등 4명이 西山書院과 鷹巖齋를 견학。

▲8월 28일 咸安郡내 각 중학교 학생 90명이 西山書院을 방문、생육신의 거룩한 얼을 기렸다。

▲9월 6일 부산 三樂會(정년퇴임 교장출신 모임)회원 1백55명이 雄濟 종원(본회 이사)의 안내를 받아 西山書院을 방문。 英濟 본회 부회장의 안내로 생육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訃音

▲本會 理事 趙健濟((株)東興綜合建設 사장) 합부인 永川 李氏 9월 22일 별세。

▲咸安趙氏 晋州화수회 趙鏞哲 회장、지난 10월 9일 병환으로 별세。

祝 鷹巖齋 重建 竣工

咸安趙氏咸安花樹會
會長 趙穆來 (執義公派)
TEL. 83-3977

咸安趙氏馬山花樹會
會長 趙敏奎 (斗巖公派)
TEL. 46-9655

咸安趙氏蔚山花樹會
會長 趙鏞德 (固城公派)
TEL. 47-3177

咸安趙氏靑松花樹會
會長 趙鏞弼 (新堂公派)
TEL. 72-4472